

與 “이해하지만... 허탈” 野 “세월호 책임 외면”

정홍원 총리 유임... 여야 반응 엇갈려

여, 일부 반발속 김기춘 비서실장 퇴진 거론 야, “7·30 재보선 염두에 둔 것” 의구심도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결정과 관련,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권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말을 아낀 반면 야권은 세월호 책임론을 내세우며 공세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결정에 일단 “고뇌에 찬 결정”이라는 입장과 함께 공식반응을 삼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두 명의 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목도하고, 결국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고 물러나기로 한 정 총리가 유임된 결과를 받아들이는 잠담한 표정이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어이가 없다”며 야

에 언급을 피했고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진퇴까지 다시 거론하기도 했다.

일단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도 공백이 길었는데, 절차를 또 밟으려면 한 달 이상 걸릴테니 상당한 공백이 있을 것”이라며 “국정이 마비되는 일은 없어야 하니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소장파를 비롯한 초재선 의원들과 비주류 진영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며 반발 기류가 감지됐다.

진박(진박근혜) 주류 진영에서도 이해는 하지만 허탈하다는 한숨이 새어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 결정에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한 정 총리를 다시 기용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책임을 지는 고위 공직자가 아무도 없게 된다는 논리에서다. 특히 두 차례의 낙마 사태 끝에 결국 새 인물 찾기를 잠정 보류한 것은 7·30 재보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타났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유임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되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진다”며 “재보선을 앞두고 총리 인사정문화를 하면 국정운영의 지부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총리 유임 결정과 청와대 인사수석실 신설 발표를 놓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도 가열되고 있다.

유기홍 수석 대변인은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인정하고, 인사수석실 신설까지 거론하면서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사과나 김기춘 실장의 문책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80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과 관련, “세월호 참사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잊겠다’는 고백”이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60일 전, 실종자를 찾지 못한 가족의 절규에 잠을 못 이룬다면서 총리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던 정 총리였다”며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총리를 이제 와서 유임시키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홍원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서울정부청사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낸 사의를 60일 만에 반려하고 유임시키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신설 靑 인사수석실, 인사난맥 해결 주목

6년만에 부활... 공직자 사전 검증 시스템 제도화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인사난맥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사수석은 과거 참여정부 출범 당시만 들어섰다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된 조직으로 이번 신설 방침에 따라 6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인사수석 밑에는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이 있으며 이들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과 우수한 인재 발굴 및 평가를 상설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청와대는 또 인사수석이 인재발굴과 검증관리 등을 총괄하며 대

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의 ‘실무 간사’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인사수석실을 신설한 것은 지난해 초 현 정부 조각 당시 장관(급)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했다가 올해도 2명의 총리 후보자가 연쇄 낙마하는 등 인사실패가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관련 전문기구를 청와대 안에 둬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후보자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인사수석실은 기존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전 검증

작업에 비중을 둘 가능성이 크다.

또 공직 후보자의 검증 작업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과연 국민정서에 부합하는지, 그러한 문제점을 안은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있는지 등과 관련한 사전 여론 수렴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현재 청와대 인사위원장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인사관련 ‘책임론’의 출구를 마련해주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김 실장이 인사검증의 책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 조직체계에서는 ‘낙마’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김 실장이 타깃이 되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지가 강구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당법 위반 무안군수 벌금 50만원 확정... 직위유지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공무원 신분인데도 정당원으로 있으면서 당비를 낸 혐의(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철주(57) 무안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정치단체장 직을 잃게 되지만 이날 선고로 김 군수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 군수는 2012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기 전인 2007년 민주당에 가입한 뒤 2011년 전라남도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2차례에 걸쳐 당비 25만원과 30만원을 각각 납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열기자 dok2000@

평가 라운지

임내현 ‘항공 안전·산업발전 세미나’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항공안전과 항공산업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계적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 사 전문가들과 국토교통부·항공사·공항·한국교통연구원 등의 항공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항공 안전 제고 방안과 동아시아 항공 수요의 전망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임 의원은 “항공분야의 경우 아주 작은 사고라도 지라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한 점검과 함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세미나의 첫 주제를 ‘항공 안전’으로 정했다” 말했다.

강기정, 소방 감리업자 요건 강화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소방시설 감리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건축공사와 시설공사에서 시공과 감리를 분리하는 것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일로서 건축법·정보통신공사업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등에서는 감리업자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동일인이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감리업을 동시에 하지 아니하면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특수관계인일지라도 해당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승남 ‘노인 대상 허위·과장광고 금지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노인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효도관광·경로잔치 등을 빙자해 물품을 불법·부당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를 위반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도 들어갔다.

김 의원은 “노인은 일반 성인에 비해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한 계층으



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약용, 각종 물품을 불법·부당 판매하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장광고나 불법·부당판매를 금지시켜 노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의 힘 청문회 활동 7명 낙마시켜 문창극 포함엔 ‘낙마 8관왕’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여의도 정치권에 회자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낮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원내대표를 맡았거나 청문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낙마시킨 사람이 천성관·김태호·신재민 등 모두 7명이다. ‘낙마 7관왕’인데 이제 문 후보자까지 낙마시키면 8관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문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 “100%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가 사퇴와 관련해 ‘야당에 가서 물어보라’는 발언에 대해선 “야당이 답하겠다. 사퇴하라”라고 말했다.

실제로 박 의원이 나서서 낙마한 인사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김태호 총리 후보, 신재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 정동기 감

사원장 후보, 김병화 대법관 후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등 7명이다.

그런데 박 의원은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내정됐었다.

비록,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문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했지만 인사청문회를 했다고 해도 여당 내에서조차 반발이 상당한 상황이라서 통과 가능성이 희박했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전망이다.

결국, 박 의원은 자신의 말대로 8관왕을 달성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박 의원은 다양한 인맥을 관리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을 뿐 아니라 한발 빠른 대응으로 정치적 쟁점과 대결구도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이 때문에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박 의원이 저승사자로 생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우리는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달렸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우리의 저력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인문정신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인문정신**, 대한민국의 **희망**을 이어갑니다.